

# ‘막걸리 누보’ 맛 보셨나요?

전남 햅쌀 막걸리·광주 울금 막걸리 시판 잇따라

## 값은 2배 비싸지만 신선한 맛·혈액순환 좋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햅쌀로 빚은 막걸리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전남산 친환경 햅쌀로 빚은 막걸리가 출시되고, 광주에서는 햅쌀과 울금을 주원료로 빚은 ‘울금 막걸리’가 생산·판매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과 장흥·강진 등 도내 양조장 6곳에서 올해 산 친환경 쌀 55t을 사용해 햅쌀 막걸리

50만병(750ml 기준), 10억 원어치가 생산·전국 유통망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햅쌀 막걸리 시판은 최근 막걸리 인기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비

가 급감하고 있는 쌀 소비 촉진과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전남도가 도내 막걸리 생산업체를 설득해 이뤄졌다.

햅쌀 막걸리 제조에 참여한 업체는 순천 주조공사·장흥 안양주조장·강진 병영주조장·영암 삼호주조장·함평 자자지양·진도 주조장 등 6개 업체다.

햅쌀 막걸리는 기존의 밀가루나 수입 쌀, 묵은 쌀을 주원료로 한 일반 막걸리와 달리 원료 가격 차이가 커 출



〈전남 햅쌀 막걸리〉 〈광주 울금 막걸리〉

고객은 2배 정도 비싸지만, 술맛은 수입산 쌀 등을 사용했을 때보다 신선하고 산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쌀의 산화된 지방질로 인해 생성될 우려가 큰 속취 성분인 휴Hell 유와 메탄올이 줄어들어 기존 막걸리보다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만 시범 생산해 소비자 반응 등을 본 후 앞으로 연중 햅쌀 막걸리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주)우리 술이 햅쌀과 울금으로 빚은 ‘울금 막걸리’가 출시된다. ‘울금막걸리’는 혈액순환, 통증완화, 어혈 등 각종 출혈에 효과가 있고 속취가 없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막걸리 병에 ‘2009년 햅쌀 막걸리’란 태그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기로 했으며,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햅쌀도 생산자와 생산지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박근조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경기 포천의 배상면주가도 전남산 친환경 햅쌀을 이용해 막걸리를 생산하기로 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햅쌀 막걸리 생산에는 전남 6개 업체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34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며, 전국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모두 1천211t의 햅쌀이 막걸리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된 햅쌀 막걸리는 지난 달 일부 업체가 제조한 햅쌀 막걸리가 ‘막걸리 누보’란 별칭으로 출시된

### ■ 햅쌀 막걸리 생산업체 현황

지자체	양조장명	제품명	용량(ml)
광주	(주)우리술	율금막걸리	750
순천	순천주조공사	나누우리	750
장흥	안양주조장	햇햇발이하늘수	500
강진	병영주조장	설성막걸리	900
영암	삼호주조장	설성막걸리	1,700
함평	(유)자자지양	자화향맥주	500
진도	진도주조장	미정	

데 이어 전국적으로 대량 시판되는 것이다. ‘막걸리 누보’란 그해 수확한 포도로 빚은 햇포도 주인 ‘보풀레 누보’를 본래 불인 이름이다.

/최권일·윤한석기자 cki@kwangju.co.kr

가 부동의 1위였다. 집(75.1%), 직장(74.4%), 야외(79.6%)는 맥주가, 레스토랑은 포도주(74.2%)가 가장 어울리는 술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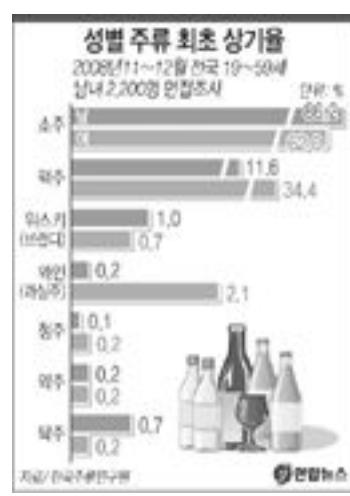
술에 대해 연상되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소주는 친근하고(81.0%) 믿을만하며(58.5%), 부담 없고(73.6%), 깨끗한(53.1%) 이미지를 떠올렸고 깊은 술 이미지는 맥주(71.6%)가 가장 높았다.

술을 마시는 대상이 있을 때는 소주는 직장에서, 맥주는 가족과, 포도주는 연인과, 일반증류주는 거래처 사람과 마시기 적합한 술로 조사됐다. 화자 마시기 잘 어울리는 술로는 응답자의 56.0%가 맥주를 꼽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유형별로는 남성은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애주가형이 많았고 여성은 술 마실 때 무엇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술 생각나면 소주”

## “피로 회복엔 맥주”

### 주류연구원 성인 2,200명 조사



우리나라 국민은 고민이 있을 때는 소주가, 피로 회복이나 스포츠 관람 때는 맥주가, 잡대에는 위스카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평균 소주는 7병을, 맥주는 8병을 마시며 술 하면 떠오르는 주종은 단연 소주인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주류연구원 조성기 박

사팀이 지난해 11~12월 전국의 19~59세 남녀 2천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 최근 공개한 ‘주류 소비자 행태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는 소주 외에 야주(21.0%)와 청주(19.2%)를 이같이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어렵게 주증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소주(85.2%)가, 피로해소를 위해서는 맥주(63.5%)가, 잡대 시에는 위스카(63.5%)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를 잡을 때는 포도주(70.8%)를, 식사 반주로